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말씀: 창2:15-17

요절: 창2:17

오늘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한 가운데 두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잠언과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이 땅이 에덴처럼 회복되며,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을 따라 가로수처럼 줄지어 자라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무가 단지 신화적 상징이요, 문학적 비평 장치이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나무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자라게 하신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실제 땅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등은 상상이나 가상의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신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가 생명나무의 특성을 가장 많이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영양과 진액을 받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을 내는 나무로 또한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롬11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대부분의 서양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에 고용된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여자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아담에게 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Golden Apple, Adam's apple과 같은 말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유사점을 찾자면 "피와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는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도의 피(창49:11). 포도의 순수한 피(신32:14).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포도즙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운 정원(동산)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온갖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농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사르 사람(나실인)들에게 포도는 "금지된 과일(열매)"이었습니다. 포도즙은 물론이요 포도즙의 식초, 생포도, 건포도, 포도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민6:4-6).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이 아닌 '포도'를 금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 포도는 피를 예표합니다. *포도의 피(창49:11). 포도의 순수한 피(신32:14). 마26:26-8.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골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계14:19-20). 땅을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포도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다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밟는 모습이 대환란 때 임할 심판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누구도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입니다. 피로 예표되는 포도는 사람들에게 금지된 열매입니다.
- 포도는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신32:33). 포도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잠20:1).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잠23:31-32).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 *용의 독, 독사의 독,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것이요, 조롱하고 날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은 금지된 음식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엡5:18).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로 예표 되는 포도는 금지된 열매입니다.
- 포도는 땅에서부터 뱀처럼 감아 올라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는 땅위로 감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포도나무”(계14:18-20)가 아니라 참포도 나무입니다(요15:1). 포도는 피, 술, 벌거벗음,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장 잘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올리브나무로 묘사됩니다. “네 아내는 네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네 상 돌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다.”(시128:3). 최초의 남편이었던 아담은 아내로 인해 죽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 죽습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15).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던 고로 아담은 ‘동산지기’였습니다. 흔히 사람의 첫 번째 직업, 인류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농부, 동산지기입니다. “그것(동산)을 가꾸고(dress) 지키게(keep) 하셨더라.”란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남편(husband)이란 말이 농부(husbandman)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남편은 열매를 맺는 ‘아내’라는 자기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시127:3, 128:3). 성경에 따르면 아내(신부)는 동산이요, 샘입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웅덩이요, 봉한 샘이로구나.”(아4:12).

하나님은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셨지 해변이나 산골짜기 동굴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아담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요14:2). 아담은 관리자입니다. 아담은 청지기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꾸어야 합니다.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창1:27-28).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keep)”는 말씀을 통해 에덴에 스며들 도둑이나 속이는 자, 침입자, 약탈자에 대한 암시를 받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요10:10a)란 말씀은 첫 사람 아담에게도 진리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훔치고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command)으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명령”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freely eat)입니다.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서 그 열매를 마음대로(값없이)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양식)은 에덴에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freely eat. 사람의 처음 음식은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인종, 민족, 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는 사람의 입에 가장 잘 맞는 음식으로 처음에 주어진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는 ‘생명나무’를 포함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과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마음대로-freely)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생(永生)은 사람의 노력이나 일, 행위, 업적에 따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은혜요 값없는 선물(free gift)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롬5:18), “**은혜를 통한 선물**”(롬5:15)란 말씀대로 free, gift, grace 등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보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마음대로(값없이) 먹으라**’입니다. 즉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선물, 은혜의 영을 받는 것은 값없이 되는 일이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나 기타 무엇으로 은혜에 혼합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는 명령은 은혜의 특권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명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유독 비판하고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명령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금지 명령**’입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17).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나무로서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금지(禁止)된 나무입니다.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으

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사망의 음식’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과일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지 명령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수백, 수천 종의 나무들이 있지만 금지 명령이 주어진 나무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knowledge)**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은 판단(재판)의 영역입니다. 판단(재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신 1:17). 사람이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에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게 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자라난 후에 세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사람의 악함이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성(性)에 대해 아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속임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좋지 비열함, 속임수 등에 대해 훤히 아는 아이를 좋아하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살인, 간음, 폭력, 싸움, 사기 등등 이런 말들이 애들 입에 오르내리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 너는 아직 알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악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물들지 말고,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주님은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창 3:22a)라고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후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 독립적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을 소유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끌리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면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고 끌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벤전3:12). 선악을 알지 못할 때는 아예 악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 선악을 알게 되면 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 “**선악의 지식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멸하러 오는 사탄을 대적하여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

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죄의 법을 이길 본성이나 선한 양심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주는 율법은 아무에게도 의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7:9).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달리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면서 유독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 열매는 보통 과일 나무와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사망을 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 왔을 때 사람은 눈이 열렸고, 선악을 알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는 사람이 먹는 날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주신 것이지만 나무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닌데 단지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가 먹는 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을 슬쩍 바꾸어서 읽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속에 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통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히5:14).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17). 주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고 의롭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죄가 없었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은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역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두시고 선택하도록 하십니다(신30:19). 아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의롭게 됩니다.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인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담은 전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 그룹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혼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갈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지음 받을 때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아담은 죄악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무지한 상태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두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불행의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란 주장입니다. 이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로 벌어지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유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굶주림으로 인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무 것도 몰라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는 말씀은 해석이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 불순종으로 인해 범죄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대신 불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생명대신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명령도 순종하지 못했고, 단 한 가지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예이며, 따라서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